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로 걸으라

(사도행전 16:16-25)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며, 돈 문제나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깊은 고통과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와 반응은 스스로가 어떤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만약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칙이 굳건히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위기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던 세 가지 철저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원칙은 사역의 성패나 상황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회당조차 찾지 못해 막막한 상황에서 강가로 나가 기도처를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녀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서 사역의 성과에 도취되어 기도를 소홀히 하기 쉽지만, 바울은 길이 열린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라는 말씀처럼 매 순간 기도의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연약하고 궁핍하며 몸이 아플 때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적·체력적 풍요가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도를 멈추고,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곤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은 부족할 때뿐만 아니라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바울의 태도는 언제나 일관됩니다. 언제나

자신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과 찬사를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여러 날 쫓아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으나 바울은 이를 몹시 괴로워하며 오히려 귀신 쫓아내는 일을 회피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이는 귀신이 하나님보다 바울 개인에게 대중의 이목과 인기를 집중시켜 그를 신격화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한 후 사람들이 자신을 헤르메스 신으로 숭배하려 했던 위기를 경험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 영적인 생명을 거는 수준의 극심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적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높여 파멸로 이끕니다. 아담과 하와, 사울왕, 그리고 왕궁의 보물을 과시하다 몰락한 히스기야 등 수많은 지도자가 이 '교만'이라는 덫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모세 역시 광야에서 백성들의 거둬진 원망에 감정의 한계를 느끼고,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며 하나님의 권능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은근히 과시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영광 가로채기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이 순탄하게 풀리고 주변의 칭찬이 쏟아질 때, 은혜에 편승해 슬그머니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아주 미세한 영적 교만까지도 우리는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탈출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원칙입니다. 바울은 예기치 못한 환난과 부당한 억울함을 당할 때, 고난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묵묵히 구했습니다.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녀를 통해 부를 축적하던 주인들은 수익 소망이 끊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바울과 실라를 관가로 끌고 가 고발했습니다. 군중이 동조하여 그들의 옷을 찢고 몹시 때린 후,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차꼬(족쇄)까지 채웠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치고는 과

도한 폭력이 가해진 배경에는 깊은 영적 대립이 존재합니다. 어둠과 더러움 속에 거하는 세상은 끝까지 깨끗함을 지키려는 성도를 보면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빛을 몰아내고자 본능적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삶은 이 땅에서의 안락함이나 세속적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걸음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원뿔을 맞으면 오른뿔을 돌려대는 삶을 살면, 세상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바보 취급을 하며 도리어 더 이용해 먹으려 듭니다. 따라서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정상적인 대접을 기대하기보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고초를 피할 법적 수단이 있었음에도 인간적인 잔피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밤중이 되어 매 맞은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신세 한탄을 하거나 감옥에서 꺼내 달라는 이기적인 기도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억울한 간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바라며 한밤중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차꼬가 풀리는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그들이 탈옥하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 역시, 그들의 최종 목적이 '고난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소명 중심의 태도는 결국 절망해 자결하려던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생각, 지혜를 앞세우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일이 잘될 때나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나 묵묵히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에서 걸어가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마저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생명 구원의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실 것입니다.